



학생부문 우수작

## 세상의 그림자를 투영하는 거울, <지식채널 e>

문지원

약 5분 정도의 짧은 러닝타임.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짤막한 영상들로 어우러진 화면. 광고와 드라마의 중간에서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용들. 기대감에 가득 찬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던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비추던 TV의 파란 빛. 이것이, 내가 <지식채널 e>를 처음으로 접했던 때의 기억이다.

철학 시간이었다. 평소에도 사회 이슈로 토론의 장을 자주 열어주시던 선생님께서 DVD 몇 개를 들고 오셨다. 영화나는 아이들의 물음에 5분짜리 영화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하셨고, 그 말에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진 아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의자를 들고 TV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윽고 영상이 시작되며, 검은 화면 중간에 나타난 <지식채널 e>. 그 때부터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이면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무방비한 상태로 영상이 주는 충격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난 후, 선생님께서는 조용해진 아이들에게 이것이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단지 눈으로만 인식했던 내용들이 생생하게 머릿속을 파고들어오

기 시작했다. 그랬다. 그것은 내가 알면서도 지나쳐왔던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었고,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하는 현실이었다. 내가 스치듯 바라보고 넘기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그들이 보는 세상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주는 강렬한 인상에 호기심이 발동했음에도, 나는 TV 시청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쉬움만 가진 채 흘려보내야 했다.

한 주가 지나고, 또다시 <지식채널 e>와 마주치게 된 나는 이전보다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영상에 집중했고, 그에 부응하듯 <지식채널 e>는 인상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나를 끌어들었다. 그때 보았던 영상의 제목은 '5분'이었다. 일상 속의 사소한 일부분을 확대하여 보여준 그것은 이전과는 또 다른 신선함으로 내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사소함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그림자. 그제야 나는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시선으로 현실의 반대편에 서서 보여주는 현실. 그 현실이 모여 이루어진 지금의 사회. 그 존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바닥에 묻혀버린 이 사회의 그림자를 조명하는 것. 그것이 내가 본 <지식채널 e>의 역할이었다. 생각의 끝에 도달하게 된 이 결론은 평소 연출기를 꿈꾸던 나에게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제시했고, 시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그 이후로 <지식채널 e>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이전 화를 찾아보기도 하고, 학교를 일찍 마쳤을 때에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과 만날 기회를 점차 늘려가게 되었다. 이렇듯 나는 내 이목을 차지한 이 프로그램에 꽤나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의 단점이나 한계 또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식채널 e>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내가 생각한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내 눈에 띄었던 것은, 내용을 잘 살려주지 못하는 부실한 시각 효과였다. 러닝타임이 짧은 영상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함축적이면서도 그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시청자의 뇌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때문에 TV 광고들도 자극적이고 화려한 시각효과를 애용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단조로운 텍스트와 밋밋한 영상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한다. 만약에 TV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한쪽에선 화려하고 감각적인 영상이 나오고, 다른 쪽에선 평범하고 단조로운 영상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자. 분명 대다수가 화려하고 감각적인 영상에 눈길을 주게 될 것이다. 물론 주가 되는 건 알찬 내용이어야겠지만,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내용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시각 효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제작진들은 투자를 확대하여 더 발전된 시청각적 기술로 효과를 창출해내야 한다. 앞서서도 거론했듯이, 함축적이면서도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인상 깊은 이미지 혹은 영상과 음향으로 시청자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청각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창의적인 표현으로 감각적인 어필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사에 관한 내용인 만큼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들로 비추어야 할 소재들을 지나치게 감정에 호소하여 표현하는 면이 많았다. ‘지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지식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그로 인해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지식채널 e>는 객관성보다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누군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드러낸다. 이를테면 재래시장에서 힘겹게 장사하는 할머니의 모습이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 허름한 행색의 아이들 등 동정심을 자극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애상적인 음악으로 분위기를 한층 심화시킨다. 이 정도면 어느 드라마 못지않게 감성을 자극하며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자세한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제3자의 입장으로 내용을 보게 되는 시청자는 대립 관계에 있는 두 집단 중 한쪽의 시선으로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시청자들이 항상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일면만을 부각시킨 내용이 고스란히 시청자에게로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전체를 보는 눈을 잃게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한쪽의 입장만을 드러내 감성에 호소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그 반대의 입장도 함께 제시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무허가 판자촌 철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면, 하나의 소재를 다룬 프로그램을 2부작으로 나눈다거나 시간을 반반으로 나누어, 철거민들의 입장과 더불어 정책을 이행하는 정부의 입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생각을 심화시키는 질문을 제시하여 시청자에게 생각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 그로써 시청자에게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점차 사회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간다면, 프로그램의 본연의 취지를 이룩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본방송과 재방송이 모두 평일 늦은 시간에 편중되어 있어서 다양한 계층이 접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실제로 <지식채널 e>의 본방송

시간은 밤 11시 45분, 재방송은 밤 9시이다. 9시는 3사의 마이너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이므로 그만큼 시청자 확보의 기회가 축소되고, 본방송 역시 밤늦게 TV 채널을 돌려보던 성인들에게 간혹 발견될 뿐, 시청자의 폭을 넓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해도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5분짜리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드라마를 포기하거나 밤늦게 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을 재편성하여 더 넓은 범위의 시청자를 확보할 기회를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계층별 주 시청시간대를 파악해 오전에는 주부 대상, 오후에는 초·중학생 대상, 밤에는 고등학생 및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주제로 방영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주 시청자에 따른 시간 편성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수준이나 관심에 걸맞은 소재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말에는 특집으로 주중 방송을 3~4개 정도 연속 방영하여 시청자들이 여유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집중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 일과에 지친 몸으로 밤늦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보다, 편안한 상태로 시청하는 것이 생각의 기회를 늘리고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의 소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파급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공모전을 열게 되면 국민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고, 참신한 소재의 발견과 더불어 일종의 프로그램 홍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처럼 EBS 홈페이지 내에 토론의 장을 개설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흥미를 끌어 민주의식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식채널 e>는 보기 드물게 청소년이 무리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이므로, 잠재하고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게다가 바람직한 사회를 향한 진보적 성향도 띠고 있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청소년에게 쉽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직 뿌렸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의식 형성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비판적 사고력과 사회문제에의 관심을 유도하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열어 청소년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하는 등 실로 청소년에게 주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개인의 가치관을 제고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송매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사회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이들이 고유의 색채를 유지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다면, <지식 채널 e>는 현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익한 시사 프로그램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주고 사회문제 인식의 발판이 되어준 이 프로그램이, 회를 거듭할수록 그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